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산물가공품 수입에 농민들의 분노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범국민 농수축산물 수입감시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는 최근 각종 외국 농산물가공품과 원료가 국내 식품대기업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자 수입농수축산물의 유통경로를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농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연합회의 이같은 제안은 해태음료, 롯데칠성음료, 진로종합식품 등 대기업 식품회사들이 원액에 가까운 과일혼합주스를 수입해 천연주스로 판매하면서 타격을 입게 된 농민들이 규탄대회, 불매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사과와 과잉생산으로 현재 국내 사과값은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만6천원으로 폭락, 저장보관료도 나오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썩는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과, 포도 등의 과일주스 농축원액의 수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형식품업체들은 사실상 원액에 가까운 형태의 혼합주스의 수입을 증가시켜왔다. 또한

대기업 사과주스 수입, '1백% 천연음료'로 판매

사과값 폭락 속 농민 시름·소비자 건강 외면, '범국민 감시기구' 구성돼야



▲대재벌 식품회사가 외국서 과일원액주스를 수입해 '1백% 천연주스'로 판매하면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외국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농산물 애용의 일환으로 농협이 개발한 천연 사과주스인 '농금주스'가 좋은 반응을 얻자 해태가 수입주스를 섞어 제조한 '플래쉬 100 농금주스'를 내놓아 알파한 상흔이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전해지자 전국 사과생산량의 70%를 차지해 재고물량이 특히 많은 경북지역에서는 농협지회를 중심으로 직판행사를 벌이고 충남지역에서도 '사과 팔아주기운동', '사과 한알 더

먹기'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농민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은 대기업의 과일주스 수입은 비단 농민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스를 1백% 과일로 만든 천연음료로 알고 마시는 소비자들에게도 기만 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농어민후계자 금릉군연합회, 의성군농민회, 봉화군청년회, 안동농민회 등이 수입대기업제품 불매운동, 규탄대회를 열었

고 경북농민회는 서울 해태음료 본사를 방문해 사과혼합주스 수입에 항의했다.

이번에 감시기구 구성을 제안한 농어민후계자연연합회의 황장수 정책조정실장은 "국내 생산으로도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외국농산물이나 가공품으로 채워지는 건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에 따르는 수입차액을 노리기 때문"이라며 "재배농가들의 피해는 물론 소비자들의 건강도 침해 받고 있다. 과일주스 수입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30대 재벌기업이 수입량의 60%를 차지하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재료형태로 들어오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연합회측이 제안한 감시기구 구성은 이러한 무분별한 수입에 대해 규제를 가할만한 법적 처벌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절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